




| | | | | | |
|---|---------|--|--|---|--|
|  해양수산부 | | 보도자료 | |   | |
| | | 배포 일시 | 2021. 7. 29.(목) 총 4매(본문 3, 참고 1) | | |
| 담당 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 • 과장 최종욱, 사무관 조경주, 주무관 김재윤 • ☎ 044)200-5830, 5836, 5837 | | |
| 보도일시 | | 2021년 7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 | |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운송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7월 30일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 법규에 반영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7월 3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액체화학품) 석유 또는 유사한 인화성 제품을 제외한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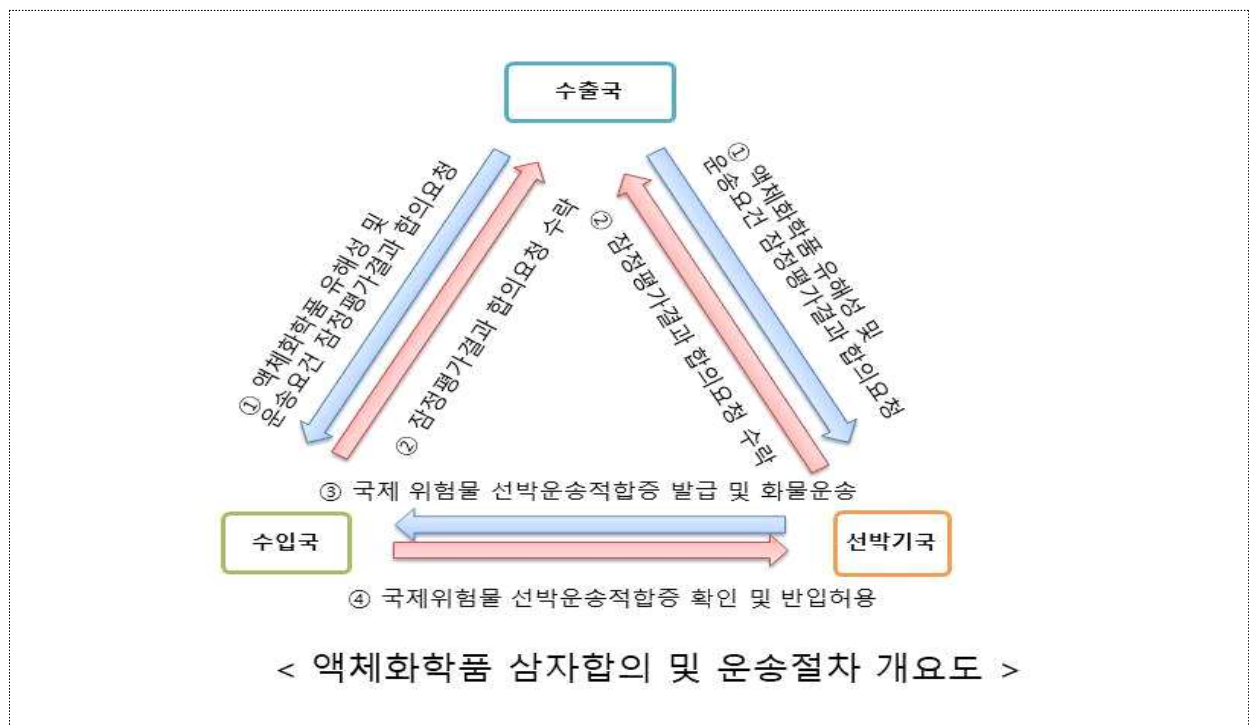
액체화학품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물질이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되었거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들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신속·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삼자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MEPC.1 Circ.512 Rev.1)을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으로 수용

국가 간 삼자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양수산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 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에 송부하여 삼자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 후 수입국가와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 자료에 따라 삼자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삼자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여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물질목록을 추가**하였다.

* 신규 액체화학품 품명추가, 선형·전기설비 분류, 계측검지장치 및 특별요건 등 개정

** 탄산칼슘슬러리, 에톡실화 글리세롤 등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7개 물질 추가 및 14개 물질 삭제

개정된 기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단, 「별표 5」 액체화학품 물질별 설비 등의 적용기준은 국내 항만 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가 간 삼자합의 절차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액체위험화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관련 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액체화학제품 운반선



액체화학제품 운반선



액체화학제품 운반선 화물작업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124조의2(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 ① 별표5의 액체화학품 품명 또는 별표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위한 잠정평가지침서(MEPC.1/Circ.512/Rev.1)(이하 '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송을 금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평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송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간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 '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운송하여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삼자합의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통보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화주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제품을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